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은 아

2013년 8월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지도교수 김 성 봉

김 은 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8월

김은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년 8월

<국문초록>

제주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폭력 실태와 대처방안

김 은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¹⁾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을 토대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원인과 실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따라 무선표집한 제주 지역 중학교 3학교, 고등학교 3학교 총 81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선호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 정도는 성별, 학년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전병일(2009), 이승권(2007), 조영애(2007)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 30문항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s 20.0을 사용하여 백분위, 빈도, 교차, χ^2 을 통해 분석하였다.

* 본 논문은 201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중·고등학생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중·고등학생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은 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을 통해 쉬는 시간에 교실(복도) 및 교내 으스스한 후미진 곳에서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 발생장소 및 시간 관련,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을 가한 후 심정 및 행동 변화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이 남학생에게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후회한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1·고1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로서 학생들은 처벌의 강화 및 보안 46.5%(323명), 경찰 순찰활동 강화 15.7%(109명) 순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사 위주의 형식적인 학교폭력 대책보다는 외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을 교사·학교 41.4%(305명)라고 가장 강조하여, 부모·가정이나 청소년 보호단체 보다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설문 학생 751명 중 92.1%(692명)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다소 높게 언급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관련,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심리 상담·조언을,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다소 높게 언급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 학교 내 CCTV 설치를 가장 강조하였다. 특히 여학생은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남학생은 학교 담당 사복 경찰을 다소 높게 언급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생들의 성별·학년별 특성 파악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에 대해 정신·심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로서 학교 내 CCTV 설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3
II. 이론적 배경	4
1. 학교폭력 관련 이론	4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0
3.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13
III.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8
1. 조사 도구	18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20
IV. 연구결과 및 해석	21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21
2. 설문자료 분석 및 해석	22
V.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8
Abstract	51
부록(설문지)	55

표 목 차

표Ⅲ-1.	설문구성 및 내용	19
표Ⅳ-1.	인구학적 통계	21
표Ⅳ-2.	학교폭력 피해 경험	22
표Ⅳ-3.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23
표Ⅳ-4.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유형(복수응답)	24
표Ⅳ-5.	학교폭력 피해자 변화 유형(복수응답)	25
표Ⅳ-6.	학교폭력 가해 경험	26
표Ⅳ-7.	학교폭력 가해 원인	27
표Ⅳ-8.	학교폭력 가해 후 심정 및 행동	28
표Ⅳ-9.	학교폭력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29
표Ⅳ-10.	학교폭력을 가장 심하게 가한 사람	30
표Ⅳ-11.	학교폭력 발생 시간	31
표Ⅳ-12.	학교폭력 발생 장소	31
표Ⅳ-1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32
표Ⅳ-14.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인식	33
표Ⅳ-1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	34
표Ⅳ-16.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할 집단	35
표Ⅳ-17.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받은 경험	36
표Ⅳ-18.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선호 유형	36
표Ⅳ-19.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정도	37
표Ⅳ-20.	학교폭력 피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38
표Ⅳ-21.	학교폭력 가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39
표Ⅳ-22.	학교폭력 문제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40
표Ⅳ-2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41
표Ⅳ-24.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42
표Ⅳ-25.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	4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 A군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가해자들의 인터넷 게임과 숙제를 대신 해주고, 옷과 용돈 바치기는 물론 특하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가해자들은 A군의 빈집을 채 집 드나들 듯 하면서 A군을 지시하면서 괴롭혔고, 심지어 물고문·불고문까지 했다. A군 사건으로 반복되는 학교폭력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학교의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각인됐다.

그러나 충격적인 학교폭력 사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3월 11일 경북 경산에서 고등학생 B군은 “경찰 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내요”, “교실이나 화장실 등 CCTV가 안달려 있거나, 있어도 화질이 안 좋아 판별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3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

제주지역에서 최근 이슈가 되었던 학교폭력으로는 중·고교생 후배들을 폭행하고 위협하여 상습적으로 2년간 3천만 원을 조직 상납하여 19명이 입건된 사건이 있다(제민일보, 2012. 1. 20). 제주지역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2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제주지역 전체 응답 학생 가운데 각각 12.1%, 8.4%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교 3학년생까지 559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설문 대상 학생 중 25%(139만 명)만 조사에 응답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실시한 학교폭력 설문임에도 신뢰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사례를 보면 학교가 폭력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학생이 문제 제기를 해도 학교는 합의를 중용하는 등 사안을 덮기에만 급급했다(해럴드경제, 2011. 12. 27).

학교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될 때마다 시행되는 학교폭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거나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대책에 대하여 무용론이나 탁상공론과 같은 비난의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Hill(1983)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변화로서 사춘기가 시작되고, 인지적 변화로서 아동기보다 진보된 사고능력이 나타나며, 사회적 변화로서 아동기와는 다른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발달단계와 확연히 구분되어 진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 변화로 인해 불안, 초조, 긴장, 정체감 혼미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인생의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 행복, 불행이 정해진다는 점과 국가적으로는 내일의 국가장래를 책임질 주인공인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국가 장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볼 때에 학교폭력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극심한 경쟁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획득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심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 도덕성의 함양,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갈등해결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환경적 특성상 일년 동안 같은 학급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피해경험은 일회성인 경우보다 한 학기 이상 지속적인 경우가 많다(정우일,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학교와 경찰, 학부모 등이 합심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청소년의 심리, 행동,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은 반드시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정부의 각종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주 지역의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를 성별, 학년별로 신뢰성 있게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 해결책을 고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를 파악한 후,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최근 변화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선호되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폭력 정도는 성별, 학년별로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유형별 실태 분석을 통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의 최근 변화에 부합하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관련 법령,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학교폭력의 발생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 관련 이론

1) 심리학적 원인론

첫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공격적·파괴적 그리고 반사회적 충동이나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릇된 어린 시절의 훈련이나 부모의 무관심 또는 효과적으로 개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며 범죄나 비행은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범수, 2009).

정신분석이론에서 범죄행위는 신경증의 한 형태로서, 범죄자는 죄의식과의 무의식적인 투쟁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처벌에 대한 강박적인 필요성으로 흔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범죄행위는 가정 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수요와 욕망을 만족시키는 대체물을 얻는 수단 또는 배제된 적개심의 표현이다.²⁾

이와 같이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폭력충동이란 행위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자아나 초자아의 통제가 결핍되거나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비합리적 폭력으로 표출되며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행위로 유발되는 것이다.

2)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0), p.183.

둘째, 열등감 이론에서는 폭력의 원인을 사회적 열등감에서 찾는다. 열등감 이론의 대표자인 Alfred Adler는 열등감 콤플렉스를 ‘주어진 문제를 사회에 유용한 방식으로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은 사람’이 갖는 특성이라고 하며, 이러한 콤플렉스는 아동기에 어른들이 자녀를 다루는 방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발견했다(김범수, 2009). 한 인간이 열등감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이것을 계기로 아이 때부터 내면에 준비되어 있는 성향에 따라 최초의 범 죄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열등감을 유년기에 잘못된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강한 욕구불만을 느꼈거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정신 질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셋째, 공격-좌절이론³⁾은 공격성이 외부조건에 의해 유발된 동기로 생긴다는 이론으로서, 그 주된 명제는 좌절이 크면 그에 따라 타인에 대한 공격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대한 압박감이나 친구와 교사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신적인 압박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좌절을 하게 되며, 이 때 일부 학생들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 이러한 공격성이 폭력으로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김난주, 2013).

김왕열(2006)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급격한 사회 변동과 가정의 기능 약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그리고 적절한 청소년 문화의 부재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여러 가지 좌절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욕구 불만과 좌절은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이론

첫째,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은 청소년들이 학습한 가치와 태도에 주목하는 이론으로서, Sutherland(1939)에 의해 주장된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이 대표적이다.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3) Baker, Dembo, Lewin의 고전적 연구에서는 눈 앞에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저지당한 아동들은 나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도록 허용되었을 때 장난감을 바닥에 박살내고, 벽에 집어 던지는 등의 매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하면, 범죄 및 비행은 사회내의 규범의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규범의 갈등은 사회가 다양한 문화와 행위유형을 지닌 다양한 집단에 의해 구성될 때 존재하게 되며, 사회 내 범위반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과 부정적인 집단이 공존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은 이러한 범죄행위유형과 반 범죄행위유형에 동시에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개인의 범죄행위는 범위반에 관련된 정의의 학습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은 주로 하위문화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행을 학습하거나 모방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평가들이 폭력 및 비행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의 연결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은 개인의 범죄동기는 일정하다고 보며 개인의 범죄행위는 사회와의 유대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일정한 범죄동기를 가진 개인이 그 동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회와의 유대마저 약화되었을 때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이 범죄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범죄동기의 차이를 중요시하는 반면, 사회유대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비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회적 통제의 결속과 유대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강용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유대이론은 개인별로 이러한 사회적 결속에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애착은 부모나 학교, 동료와 같이 자신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람들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적 결속을 의미하고, 전념은 관습적인 생활방식과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열을 말하며, 참여는 전념의 결과로 관습적인 일들에 동참하는 것, 신념은 선생님·경찰·법률과 같은 공적인 권위의 정당성과 같은 관습적 도덕 가치를 믿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4가지의 결속을 다지는 유대가 약화됨으로써 사회의 통제를 적게 받게 되고 그만큼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이 사회유대이론에서 말하는 범죄의 원인이다.

셋째,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누가, 왜 청소년비행을 저지르게 되는가'하는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동기를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이론으로 특징된다. 즉 열망은 높는데 현실적인 기대가 낮아 그 격차가 큰 아이들일수록 좌절과 긴장을

경험하게 되어 비행이나 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Merton(1964)에 의하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적 수단이 없어 목표달성을 위해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이는 계층의 구조적 문제로 성공에 이르는 수단이 없고 동등한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은 긴장과 좌절을 겪게 되어 이것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3)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이론

첫째,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은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억제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범죄자를 합리적(경제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자로 파악하고 있다. 즉 범죄자는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극소화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인 인간이므로,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대가를 받게 하고, 이러한 처벌을 통하여 미래의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억제이론의 대표적인 명제는 공식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격성이 높을수록 범죄의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 잡힐 확률이 높고,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을 받으며, 그 처벌이 엄격하다면 범죄는 줄어든다고 하여 처벌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억제이론은 처벌이라는 손실, 특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게 한다고 보며, 따라서 범죄예방 및 대책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다.⁴⁾

둘째, 생태학적 이론에서 학교폭력은 고립되어 일어나지 않으며 개인과 그의 가족, 또래집단, 학교, 지역사회 및 사회적 규범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설명된다. 정종진(2012)에 의하면, 우울·불안·충동성·문제해결 부족과 같은 개인 요인, 자녀에 대한 감독부족·학대·가족 내 공격성·부모 관여 부족과 같은 가정 요인, 또래간 폭력의 수용·개인 및 집단 폭력과 같은 또래 요인, 성인의 폭력·성인의 무관심·학교의 무처벌·학교의 부정적 분위기와 같은 학교 요인, 지역사회 내

4) 이성식,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서울: 청목출판사, 2011), p.116.

공격성·지역사회의 자원 부족·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대 부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교폭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4) 학교폭력 실태 및 대책의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난주(2013)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학교폭력예방법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보다 처벌에 초점을 둔 규정이 많으며, 학교폭력의 상담과 관련한 직무나 능력 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모형이나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서 치료요양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였다.

강용길(2012)은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로서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단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과 범죄예방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장대응단계의 ‘안전드림’ 포털을 통한 신고방식의 개선은 긍정적이며, 전담인력의 편성은 학교와의 관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전담조직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후조치단계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와 함께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병일(2009)은 광주광역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원인은 무엇인지 직접 학생들에게 질문함으로써 연구대상에 접근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대응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방과 근절의 중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함으로써 비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비행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창희(2008)는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 학생 본인만의 잘못이 아니며, 개인·가정·학교·사회의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 생겨난 문제라고 하였고, 학교 내에서 가

장 빈번히 폭력이 발생하는 폭력피해 시간대에 대한 대책으로 어머니폴리스의 운용과, 각 학교 지역의 등하교길 안전 지킴이 등을 통하여 학교 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운 피해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영애(2007)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각 집단의 인식태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학생, 교사, 경찰보다는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교육이 필요하고, 교사에게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도덕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에게는 학교주변 순화를 강화하며, 문제발생시 학생들이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기존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편안한 분위기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재엽 외(2010)는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임중독이 폭력 생각을 매개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김재철 외(2011)는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증가할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도 증가하고, 자존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줄어들었으며, 부모학대가 자존감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학교폭력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폭력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접근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 11690호](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⁵⁾,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위 법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또한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학교폭력이 물리적·언어적·정신적 폭력 등을 망라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유형 또한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에 근거하여 그 유형을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괴롭힘, 언어적 폭력,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5)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의2에 의거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태로,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각해져 살인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고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식되어진 행위를 의미한다.⁶⁾

신체적 폭력의 행위유형은 때리거나 차기,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또한 가장 일상적이라 할 수 있는 얼굴이나 머리, 몸통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 담뱃불로 지지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팔·다리나 손가락·발가락을 비트는 행위 등이 있고, 물리적 폭력으로서 칼이나 송곳으로 찌르거나 몽둥이, 쇠파이프, 빗자루, 밀대로 때리거나 휘두르는 행위, 병을 깨뜨려 찌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전병일, 2009).

나. 금품갈취

금품갈취란 학교폭력 중에서 물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형태로 이는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 간접적으로 갈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학생 간의 금품갈취는 상납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형상은 거래나 빌려주는 형태를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김난주, 2013).

류영숙(2012)에 의하면, 금품갈취의 행위 유형은 돈 빼기, 돈을 억지로 빌리고 돌려주지 않기, 학용품을 억지로 빌리고 돌려주지 않기, 학용품 등을 망가뜨리기, 학용품 등의 물건 훔치기 등이 있으며,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폭력 금품갈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품갈취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피해사실에 대한 민감성 및 대응력이 약하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유형력’(有形力)이란 신체에 대한 물리적, 생리적 작용을 의미하며, 유형력 행사는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형법상 폭행은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신체적 폭행이 요구된다. 반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따돌림이나 강제적인 심부름 등은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만 신체적 폭행이 전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따돌림이나 욕설, 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으로 규율할 수 없다.

다. 따돌림·괴롭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일명 왕따라는 단어로 접근한 입장에서는 왕따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은어로서 ‘왕 따돌림’ 혹은 ‘왕 따돌림을 받는 학생’의 준말이며, 따돌림을 받는 학생 중에서도 소속집단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따돌림의 대상으로 보는 학생이라고 정의한다(이규미, 1998).

괴롭힘은 행동을 강제로 시키는 것으로 심적 또는 육체적 성가심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심부름하기, 답안지 보여주기, 가방 들어주기, 숙제나 과제물 대신 해주기, 돈을 주지 않고 매점에서 물건 사오기 일명 빵셔틀⁷⁾ 등이 대표적이다.

라. 언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은 학교내외에서 선후배나 동료들을 상대로 놀림이나 조롱, 심한 욕설, 비난, 헐뜯기 등의 행위를 말한다.

행위 유형을 기술하면 욕이나 심한 말을 하는 행동, 욕하기, 위협하기, 비웃기,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를 내면서 놀리기, 신체외모 놀리기 등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류영숙, 2012).

마. 성폭력

성폭력이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 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폭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주어

7) 빵셔틀은 자신보다 힘이 센 학생에게 강요당하여 빵을 사오는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학생이나 혹은 그 행위 자체를 일컫는 용어이다. 빵셔틀은 그 명령을 거부하면 으레 보복이 뒤따르므로 단순히 빵을 사오는 개념이 아닌 일종의 학교폭력이며,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폭력적 사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김난주, 2013).

경찰청의 연간 학교폭력 검거현황 건수에 따르면 단순폭력은 2007년 1만 4368건에서 2010년 1만 5537건으로 8.1%, 금품갈취는 2007년 5584건에서 2010년 5992건으로 7.3%씩 증가한 반면, 성폭력은 2007년 298건에서 2010년 575건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신문, 2012. 1. 9).

3.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그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는 정종진(2012) 연구의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주로 참고하여 학교폭력 발생 요인을 크게 학교 요인, 개인 요인, 가정 요인,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 요인

학교는 또래집단을 사귀고 자신의 학문적·사회적 능력과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이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또한 폭력이 발생할 가장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은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유형과 그것이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거나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등학생 6,600명을 상대로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지, 마음은 잘 이해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학원 강사가 교사보다 1점(7점 만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교사가 인성교육에서 학원 강사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중앙일보, 2012. 1. 5).

또한 학교폭력 위험 요인으로 학교풍토를 들 수 있는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은 학교풍토의 특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학교풍토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학교 요인으로서 학교 규모와 학급의 학생 수를 들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규모가 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며,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인 감독의 부재는 괴롭힘, 싸움, 성희롱, 언어적 공격 등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학교 요인으로 또래집단을 들 수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폭력의 행동을 옹호하고 지지하거나 촉진하는 학교의 또래집단 속에서 상호작용 한다. 학생들 중에는 또래집단에 어울리거나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교폭력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 또래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또래들과 원만하게 생활하고 더 나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동조하고자 학교폭력에 가담하기도 한다.

2) 개인 요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요인으로는 먼저 성별 원인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기존 연구들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에 관여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남학생들은 직접적인 폭력의 유형 예컨대, 때리기·싸우기 등에 의해서, 그리고 여학생들은 간접적이고 관계적인 폭력의 유형 예컨대, 나쁜 소문내기·집단 따돌림 등에 의해서 보다 자주 피해를 당하는 경향이 있다. 여학생들은 친밀성과 소속감에 기초한 밀착집단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집단 따돌림과 사회적 고립 형태의 학교폭력이 여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개인의 신체적, 인지

적, 심리사회적인 특성을 들 수 있다. 동일한 연령의 학생들보다 키가 작고 체격이 작으며 힘이 약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기 쉽다. 반면에, 동일 연령의 학생들보다 키가 크고 힘이 강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사회적 특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충동성과 공격성⁸⁾이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학생들은 학교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있어서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쉽다.

김난주(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요인으로 품행장애⁹⁾, 반항성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¹⁰⁾가 폭력이나 비행과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합리적 판단력이 부족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다.

3) 가정 요인

가정은 사회화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준거집단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의 문화전달기능, 가족보호기능,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가정은

-
- 8) 공격성에 대한 심리학적 견해를 정리하면,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성장과정에서 무의식에 억압된 원초아의 욕구가 공격성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공격성이 학습된 결과라고 본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충족되지 못한 자아실현의 욕구와 거부되고 좌절된 정서의 결과로 보고, 인지심리학에서는 학생개인이 가진 사고나 신념이 비합리적이므로 공격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 9)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는 폭력, 방화, 절도,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이 난폭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품행장애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거나 나이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행동양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품행장애는 크게 4가지 문제행동, 즉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재산파괴, 사기나 절도, 중대한 규칙위반 항목 중 3개 이상이 12개월간 지속되고, 이 중 한 항목 이상이 6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품행장애로 진단된다.
- 10)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매우 산만하고 부주의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과잉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ADHD는 흔히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운동조정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ADHD를 지닌 아동의 40~50%가 나중에 품행장애의 진단을 받는다.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연구는 부적절한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 요인은 가정의 빈곤,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부모의 자녀양육방식과 같은 기능적 특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행동은 흔히 부모가 권위주의적이고 공격적인 가정의 자녀에게서 많이 목격되고, 공격적 행동은 관찰과 강화를 통해 일어난다.

양종국(2002)의 비행청소년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학교결석·약물복용·가출 등의 비행적인 행동이 환경적 요인보다 가족의 무관심 등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의하면 가족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의 비행이 증가된다고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 가해 청소년은 부모와 갈등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과 연관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족관계에 있어 가해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가족구성원들 각자가 서로의 문제와 요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 간 폭력을 많이 목격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의 가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류영숙, 2012).

또 다른 가정 요인으로 부모의 지시와 감독 역할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감독을 소홀히 하고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폭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4) 사회 요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사회 요인으로 사회적 조건을 들 수 있는데, 홍종관(2012)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산업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감의 상실 및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제도화된 폭력의 만연, 사

회전반의 유해환경 등이 폭력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또 다른 사회 요인으로 대중매체를 들 수 있다. 텔레비전, 만화, 컴퓨터 게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중매체가 확대 보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폭력 프로그램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폭력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의 호기심과 모방심리는 자극받고 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노출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수용하도록 학습시키며, 대중매체를 통해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많이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론에 이어 이론적 배경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 학교폭력 발생 원인과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이어 학교폭력 실태 자료와 직접 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총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응답한 설문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전병일(2009), 이승권(2007), 조영애(2007)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2013년 3월 6일 서귀포시에 소재한 J고등학교 1학년 38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설문지 초안을 부분 수정한 후 표Ⅲ-1과 같은 설문 30문항을 완성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Ⅲ-1. 설문구성 및 내용

영역	문항내용
일반적인 사항	1. 학생의 성별
	2. 학생의 학년
	3. 학생의 학업 성적
	4. 학생 가정의 월 소득수준
	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폭력 현황	6. 학교폭력 피해 경험
	7.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8.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유형(복수응답)
	9. 학교폭력 피해자 변화 유형(복수응답)
	10. 학교폭력 가해 경험
	11. 학교폭력 피해 경험
	12. 학교폭력 가해 후 심정 및 행동
	13. 학교폭력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14. 학교폭력을 가장 심하게 가한 사람
	15. 학교폭력 발생 시간
	16. 학교폭력 발생 장소
	17.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대처방안
19.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	
20. 학교폭력 예방 주도적인 역할 수행 집단	
21.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받은 경험	
22.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선호 유형	
23.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정도	
24. 학교폭력 피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25. 학교폭력 가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26. 학교폭력 문제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27.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28.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29.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	
3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입 사안(주관식 기재)	

2. 연구의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문헌, 논문, 각종 언론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과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과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제주 지역 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인 제주 지역 중·고등학생이 총 30개교 23,797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이므로 학교폭력 발생빈도에 따라 군집표본추출(multiple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중학교 3학교, 고등학교 3학교를 무선표집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설문 대상 총 6개 학교 21개 학급 중·고등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총 6개 학교 각 학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문을 받기로 미리 결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자 810명 상대로 79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8.5%에 이르며, 이 중 불성실한 답변과 무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757명의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백분위, 빈도, 교차, χ^2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기간 내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IV-1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65%(492명), 여학생이 35%(265명)로 남학생의 응답자가 더 많다. 중·고등학교 학년별 분포는 중3학년 26.7%(202명), 고1학년 20.1%(152명), 중1학년 14.4%(109명), 중2학년 13.6%(103명), 고2학년 13.3%(101명), 고3학년 11.9%(90명) 순서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 분포는 중 52.7%(399명), 하 29.6%(224명), 상 16.5%(125명)의 분포를 이루고 있으며, 가정의 월 소득 수준으로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7.3%(207명), 200만원 미만 24.4%(185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2%(145명)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 만족도 면에서는 보통 42.9%(325명), 만족 25.8%(195명), 불만족 12.9%(98명), 매우만족 12.2%(6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 인구학적 통계

(단위 : 명, %)

변인	문항구분	명(%)	변인	문항구분	명(%)
성별	남	492(65)	가정의 월소득	200만원 미만	185(24.4)
	여	265(3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7(27.3)
학년	중1	109(14.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5(19.2)
	중2	103(13.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0(9.2)
	중3	202(26.7)		500만원 미만	79(10.4)
	고1	152(20.1)		학교생활 만족도	무응답
	고2	101(13.3)	매우 불만족		45(5.9)
고3	90(11.9)	불만족	98(12.9)		
학업성적	상	125(16.5)	보통		325(42.9)
	중	399(52.7)	만족		195(25.8)
	하	224(29.6)	매우만족	92(12.2)	
	무응답	9(1.2)	무응답	2(0.3)	

2. 설문자료 분석 및 해석

1) 학교폭력의 피해 실태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757명 중 남학생은 7.5%(37명), 여학생은 10.2%(27명)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3.9%(28명)로 중·고등학생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p<.01$).

표IV-2. 학교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있다	64 (8.5)	37 (7.5)	27 (10.2)	5 (4.6)	11 (10.7)	28 (13.9)	10 (6.6)	3 (3.0)	7 (7.8)
없다	693 (91.5)	455 (92.5)	238 (89.8)	104 (95.4)	92 (89.3)	174 (86.1)	142 (93.4)	98 (97.0)	83 (92.2)
전체	757 (100.0)	492 (65.0)	265 (35.0)	109 (15.0)	103 (14.0)	202 (27.0)	152 (20.0)	101 (14.0)	90 (12.0)
χ^2		1.58		15.06**					

** $p<.01$

1-1)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 유형(복수응답)에 대한 설문에서는 협박·욕설이 40.2%(41명)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이 25.5%(26명), 금품갈취가 15.7%(16명), 집단따돌림·괴롭힘(왕따)이 10.8%(11명),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2.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경험이 있는 남학생 7.5%(37명), 여학생 10.2%(27명)가 응답한 피해 유형으로서, 남학생의 경우 협박·욕설이 43.2%(22명), 신체폭력 35.3%(1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협박·욕설이 37.3%(19명), 금품갈취 17.7%(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IV-3.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협박·욕설	41 (40.2)	22 (43.2)	19 (37.3)	4 (50.0)	4 (25.0)	19 (41.3)	6 (37.5)	2 (50.0)	6 (50.0)
신체폭력	26 (25.5)	18 (35.3)	8 (15.7)	1 (12.5)	3 (18.8)	10 (21.7)	6 (37.5)	2 (50.0)	4 (33.3)
금품갈취	16 (15.7)	7 (13.8)	9 (17.7)	1 (12.5)	6 (37.5)	8 (17.4)	1 (6.3)	0 (0.0)	0 (0.0)
집단따돌림·괴롭힘	11 (10.8)	3 (5.9)	8 (15.7)	1 (12.5)	3 (18.8)	3 (6.5)	2 (12.5)	0 (0.0)	2 (16.7)
성폭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이버·휴대전화 폭력	3 (2.9)	0 (0.0)	3 (5.9)	0 (0.0)	0 (0.0)	2 (4.3)	1 (6.3)	0 (0.0)	0 (0.0)
불량서클	1 (1.0)	0 (0.0)	1 (2.0)	0 (0.0)	0 (0.0)	1 (2.2)	0 (0.0)	0 (0.0)	0 (0.0)
기타	4 (3.9)	1 (2.0)	3 (5.9)	1 (12.5)	0 (0.0)	3 (6.5)	0 (0.0)	0 (0.0)	0 (0.0)
전체	102 (100.0)	51 (50.0)	51 (50.0)	8 (8.0)	16 (16.0)	46 (45.0)	16 (16.0)	4 (4.0)	12 (12.0)

1-2)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유형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자 유형(복수응답)에 대한 설문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남학생 7.5%(37명), 여학생 10.2%(27명)이 응답한 피해 유형으로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44.2%(3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에 신고했다가 15.6%(12명), 부모님께 말했다가 14.3%(1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에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형사처분을 요구한 경우는 각각 6.5%(5명), 1.3%(1명)로 비율이 낮았다.

표IV-4.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유형(복수응답)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	34 (44.2)	17 (39.5)	17 (50.0)	2 (18.2)	6 (46.2)	15 (48.4)	6 (54.5)	1 (50.0)	4 (44.4)
학교에 신고	12 (15.6)	7 (16.3)	5 (14.7)	2 (18.2)	4 (30.8)	4 (12.9)	1 (9.1)	0 (0.0)	1 (11.1)
청소년 상담기관에 신고	3 (3.9)	1 (2.3)	2 (5.9)	0 (0.0)	0 (0.0)	1 (3.2)	0 (0.0)	0 (0.0)	2 (22.2)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1 (1.3)	0 (0.0)	1 (2.9)	0 (0.0)	1 (7.7)	0 (0.0)	0 (0.0)	0 (0.0)	0 (0.0)
학교에 가해학생의 처벌 요구	5 (6.5)	3 (6.9)	2 (5.9)	1 (9.1)	2 (15.4)	1 (3.2)	1 (9.1)	0 (0.0)	0 (0.0)
가해학생의 형사처분 요구	1 (1.3)	1 (2.3)	0 (0.0)	1 (9.1)	0 (0.0)	0 (0.0)	0 (0.0)	0 (0.0)	0 (0.0)
부모님께 말했다	11 (14.3)	6 (14.0)	5 (14.7)	2 (18.2)	0 (0.0)	6 (19.4)	1 (9.1)	0 (0.0)	2 (22.2)
기타	10 (13.0)	8 (18.6)	2 (5.9)	3 (27.3)	0 (0.0)	4 (12.9)	2 (18.2)	1 (50.0)	0 (0.0)
전체	77 (100.0)	43 (56.0)	34 (45.0)	11 (15.0)	13 (17.0)	31 (41.0)	11 (15.0)	2 (3.0)	9 (12.0)

1-3) 학교폭력 피해자 변화 유형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피해자 유형(복수응답)에 대한 설문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는 남학생 7.5%(37명), 여학생 10.2%(27명)가 응답한 피해 유형으로서,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변화 23.6%(21명),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함 14.6%(13명), 거짓말을 자주하게 됨 12.4%(11명), 반항적으로 변함 10.1%(9명)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5. 학교폭력 피해자 변화 유형(복수응답)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변화	21 (23.6)	10 (21.7)	11 (25.6)	0 (0.0)	5 (27.8)	8 (20.5)	1 (7.7)	2 (66.7)	5 (50.0)
거짓말 자주하게 됨	11 (12.4)	7 (15.2)	4 (9.3)	1 (16.7)	3 (16.7)	5 (12.8)	1 (7.7)	0 (0.0)	1 (7.7)
음주, 흡연, 약물 등 오남용	4 (4.5)	2 (4.3)	2 (4.7)	0 (0.0)	1 (5.6)	1 (2.6)	1 (7.7)	0 (0.0)	1 (7.7)
반항적으로 변함	9 (10.1)	4 (8.6)	5 (11.6)	2 (33.4)	3 (16.7)	2 (5.2)	2 (15.4)	0 (0.0)	0 (0.0)
학교가 싫어 결석을 자주 함	3 (3.4)	2 (4.3)	1 (2.3)	0 (0.0)	0 (0.0)	0 (0.0)	2 (15.4)	0 (0.0)	1 (7.7)
휴학이나 전학 생각	8 (9.0)	3 (6.5)	5 (11.6)	1 (16.7)	1 (5.6)	5 (12.8)	1 (7.7)	0 (0.0)	0 (0.0)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	13 (14.6)	6 (13.0)	7 (16.2)	0 (0.0)	2 (11.1)	8 (20.5)	1 (7.7)	0 (0.0)	2 (15.4)
기타	20 (22.5)	12 (26.0)	8 (18.6)	2 (33.4)	3 (16.7)	10 (25.6)	4 (30.8)	1 (33.3)	0 (0.0)
전체	89 (100.0)	46 (52.0)	43 (48.0)	6 (7.0)	18 (21.0)	39 (44.0)	14 (16.0)	3 (4.0)	13 (15.0)

2) 학교폭력 가해 실태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753명 중 남학생은 7.5%(37명), 여학생은 4.2%(11명)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10.9%(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p<.05$).

표IV-6. 학교폭력 가해 경험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있다	48 (6.3)	37 (7.5)	11 (4.2)	4 (3.7)	7 (6.8)	22 (10.9)	8 (5.3)	3 (3.0)	4 (4.4)
없다	709 (93.7)	455 (92.5)	254 (95.8)	105 (96.3)	96 (93.2)	180 (89.1)	144 (94.7)	98 (97.0)	86 (95.6)
전체	753 (100.0)	492 (66.0)	265 (34.0)	109 (15.0)	103 (14.0)	202 (27.0)	152 (21.0)	101 (14.0)	90 (12.0)
χ^2		3.29		11.16*					

* $p<.05$

2-1) 학교폭력 가해 원인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학교폭력을 행사했는지 분석한 결과 가해경험이 있는 남학생 7.5%(37명), 여학생 4.2%(11명)가 응답한 가해 원인으로서는, 본인의 성격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4.2%(2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원인이 당한 학생의 문제 18.8%(9명), 그 외 불량서클이나 폭력조직 등 폭력문화나 학교 구성원 등 어른들의 무관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2%(2명)로 학교폭력의 원인이 과열경쟁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문제나 학교 구성원들의 무관심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원인에 대해서는 성별, 학년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IV-7. 학교폭력 가해 원인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본인의 성격문제	26 (54.2)	22 (59.5)	4 (36.4)	4 (100.0)	4 (57.1)	10 (45.5)	4 (50.0)	2 (66.7)	2 (50.0)
본인의 가정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당한 학생의 문제	9 (18.8)	8 (21.6)	1 (9.1)	0 (0.0)	2 (28.6)	4 (18.2)	2 (25.0)	0 (0.0)	1 (25.0)
과열경쟁, 입시위주 학교교육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불량서클, 폭력조직 등 폭력 문화	2 (4.2)	2 (5.4)	0 (0.0)	0 (0.0)	1 (14.3)	1 (4.5)	0 (0.0)	0 (0.0)	0 (0.0)
학교 구성원 등 어른들의 무관심	2 (4.2)	1 (2.7)	1 (9.1)	0 (0.0)	0 (0.0)	1 (4.5)	1 (12.5)	0 (0.0)	0 (0.0)
기타	9 (18.8)	4 (10.8)	5 (45.5)	0 (0.0)	0 (0.0)	6 (27.3)	1 (12.5)	1 (33.3)	1 (25.0)
전체	48 (100.0)	37 (77.0)	11 (23.0)	4 (9.0)	7 (15.0)	22 (46.0)	8 (17.0)	3 (7.0)	4 (9.0)
χ^2		7.44		11.93					

2-2) 학교폭력 가해 후 심정 및 행동

학교폭력을 가한 후 심정 및 행동 변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가해경험이 있는 남학생 7.5%(37명), 여학생 4.2%(11명)가 응답한 가해 원인으로서는, 후회한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은 학생이 62.5%(3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후회는 되었지만 폭력에 계속 가담한 학생이 20.8%(10명), 별 생각이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8.3%(4명) 등 학교폭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도 37.8%(18명)나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후 심정 및 행동 관련,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후회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음이 90.9%(10명)로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표IV-8. 학교폭력 가해 후 심정 및 행동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후회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음	30 (62.5)	20 (54.1)	10 (90.9)	3 (75.0)	3 (42.9)	16 (72.7)	6 (75.0)	1 (33.3)	1 (25.0)
후회는 되었지만 폭력에 계속 가담함	10 (20.8)	9 (24.3)	1 (9.1)	1 (25.0)	2 (28.6)	5 (22.7)	1 (12.5)	1 (33.3)	0 (0.0)
별 생각이 없음	4 (8.3)	4 (10.8)	0 (0.0)	0 (0.0)	2 (28.6)	0 (0.0)	1 (12.5)	1 (33.3)	0 (0.0)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음	2 (4.2)	2 (5.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50.0)
나의 폭력은 정당하다 생각	2 (4.2)	2 (5.4)	0 (0.0)	0 (0.0)	0 (0.0)	1 (4.5)	0 (0.0)	0 (0.0)	1 (25.0)
전체	48 (100.0)	37 (77.0)	11 (23.0)	4 (9.0)	7 (15.0)	22 (46.0)	8 (17.0)	3 (7.0)	4 (9.0)
χ^2		4.92		39.11**					

** $p < .01$

2-3) 학교폭력을 당한 이유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어떤 원인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있는지(복수응답)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당한 원인으로 약하게 보여서가 24.6%(363명), 이유 없이 19.4%(287명), 사소한 감정 때문에 17.5%(259명), 잘난 척해서 12.6%(186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IV-9. 학교폭력을 당한 이유(복수응답)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이유 없이	287 (19.4)	163 (18.6)	124 (20.5)	37 (17.0)	42 (21.1)	77 (18.4)	58 (19.5)	35 (20.2)	38 (21.9)
약하게 보여서	363 (24.6)	237 (27.1)	126 (20.9)	60 (27.5)	30 (15.1)	103 (24.6)	77 (25.9)	47 (27.2)	46 (26.6)
금품 때문에	80 (5.4)	54 (6.2)	26 (4.3)	13 (5.9)	10 (5.0)	27 (6.5)	17 (5.7)	6 (3.5)	7 (4.0)
친구가 적거나 없어서	153 (10.4)	76 (8.7)	77 (12.7)	33 (15.1)	23 (11.6)	37 (8.9)	32 (10.8)	14 (8.1)	14 (8.1)
순종하지 않아서	88 (6.0)	53 (6.1)	35 (5.8)	10 (4.6)	15 (7.5)	24 (5.7)	19 (6.4)	8 (4.6)	12 (6.9)
잘난 척해서	186 (12.6)	112 (12.8)	74 (12.2)	26 (11.9)	28 (14.1)	53 (12.7)	40 (13.5)	16 (9.2)	23 (13.3)
사소한 감정 때문에	259 (17.5)	145 (16.6)	114 (18.9)	26 (11.9)	40 (20.1)	71 (16.9)	53 (17.8)	40 (23.1)	29 (16.8)
기타	62 (4.2)	34 (3.9)	28 (4.6)	13 (5.9)	11 (5.5)	26 (6.2)	1 (0.3)	7 (4.0)	4 (2.3)
전체	1,478 (100.0)	874 (60.0)	604 (40.0)	218 (15.0)	199 (14.0)	418 (29.0)	297 (20.0)	173 (12.0)	173 (12.0)

2-4) 학교폭력을 가장 심하게 가한 사람

학교폭력을 가장 심하게 가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설문 결과, 같은 학교 친구·동급생이 53.4%(354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같은 학교 선배 18.9%(125명) 순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주로 같은 학교 아는 학생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IV-10. 학교폭력을 가장 심하게 가한 사람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같은 학교 친구·동급생	354 (53.4)	229 (52.5)	125 (55.1)	37 (46.2)	46 (51.1)	103 (58.5)	82 (59.4)	30 (31.6)	56 (66.7)
같은 학교 선배	125 (18.9)	69 (15.8)	56 (24.7)	22 (27.5)	26 (28.9)	34 (19.3)	21 (15.2)	16 (16.8)	6 (7.1)
다른 학교 친구·아는 사람	52 (7.8)	38 (8.7)	14 (6.2)	5 (6.2)	6 (6.7)	8 (4.5)	10 (7.2)	19 (20.0)	4 (4.8)
전혀 모르는 사람	122 (18.4)	92 (21.1)	30 (13.2)	15 (18.8)	12 (13.3)	30 (17.0)	23 (16.7)	29 (30.5)	13 (15.5)
재수생, 복학생, 퇴학생, 정학생	10 (1.5)	8 (1.8)	2 (0.9)	1 (1.2)	0 (0.0)	1 (0.6)	2 (1.4)	1 (1.1)	5 (6.0)
χ^2		13.55**		74.22***					

** $p < .01$, *** $p < .001$

2-5) 학교폭력 발생 시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44.0%(287명), 하교 이후 시간이 34.5%(225명), 하교시간이 10.7%(7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 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에 학교폭력 발생시간이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여학생들은 하교 이후 시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1$).

표IV-11. 학교폭력 발생 시간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등교시간	9 (1.4)	8 (1.9)	1 (0.4)	1 (1.3)	1 (1.2)	2 (1.2)	3 (2.1)	1 (1.0)	1 (1.1)
수업시간	10 (1.5)	7 (1.7)	3 (1.3)	1 (1.3)	1 (1.2)	3 (1.8)	1 (0.7)	2 (2.1)	2 (2.3)
쉬는시간	287 (44.0)	209 (49.4)	78 (34.1)	24 (30.8)	29 (34.5)	75 (45.5)	65 (46.1)	39 (40.2)	55 (63.2)
점심시간	51 (7.8)	30 (7.1)	21 (9.2)	6 (7.7)	18 (21.4)	8 (4.8)	7 (5.0)	5 (5.2)	7 (8.0)
하교시간	70 (10.7)	42 (9.9)	28 (12.2)	13 (16.7)	6 (7.1)	19 (11.5)	15 (10.6)	12 (12.4)	5 (5.7)
하교 이후 시간	225 (34.5)	127 (30.0)	98 (42.8)	33 (42.3)	29 (34.5)	58 (35.2)	50 (35.5)	38 (39.2)	17 (19.5)
χ^2		18.92**		54.44**					

** $p < .01$

2-6) 학교폭력 발생 장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복도)이 39.4%(259명)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주변 골목길 21.6%(142명), 교내 으스스한 후미진 곳 16.6%(10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경우 교실(복도)을 많이 언급하였다($p < .001$).

표IV-12. 학교폭력 발생 장소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교실(복도)	259 (39.4)	194 (45.2)	65 (28.5)	20 (24.4)	36 (39.6)	73 (44.5)	56 (40.3)	29 (30.5)	45 (52.3)
화장실	83 (12.6)	44 (10.3)	39 (17.1)	12 (14.6)	19 (20.9)	27 (16.5)	10 (7.2)	5 (5.3)	10 (11.6)
교내 으스스한 후미진 곳	109 (16.6)	76 (17.7)	33 (14.5)	17 (20.7)	19 (20.9)	23 (14.0)	17 (12.2)	22 (23.2)	11 (12.8)
오락실·PC방·노래방	46 (7.0)	21 (4.9)	25 (11.0)	4 (4.9)	3 (3.3)	14 (8.5)	10 (7.2)	14 (14.7)	1 (1.2)
학교주변 골목길	142 (21.6)	87 (20.3)	55 (24.1)	28 (34.1)	14 (15.4)	19 (11.6)	43 (30.9)	22 (23.2)	16 (18.6)
친구의 집·자취방	18 (2.7)	7 (1.6)	11 (4.8)	1 (1.2)	0 (0.0)	8 (4.9)	3 (2.2)	3 (3.2)	3 (3.5)
χ^2		31.41***		75.92***					

*** $p < .001$

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문 결과,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가 51.5%(3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칙에 따라 처벌 18.1%(130명),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처리 13.7%(98명), 아무런 조치 없음 7.7%(5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중1·고1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p < .01$). 이는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 대처방안이나 처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IV-1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아무런 조치 없음	55 (7.7)	27 (5.8)	28 (11.2)	2 (2.1)	11 (11.3)	17 (8.8)	12 (8.2)	4 (4.0)	9 (10.5)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처리	98 (13.7)	70 (15.0)	28 (11.2)	7 (7.4)	24 (24.7)	30 (15.5)	18 (12.2)	9 (9.1)	10 (11.6)
학부모가 서로 합의	28 (3.9)	22 (4.7)	6 (2.4)	5 (5.3)	5 (5.2)	6 (3.1)	5 (3.4)	4 (4.0)	3 (3.5)
교칙에 따라 처벌	130 (18.1)	89 (19.1)	41 (16.4)	7 (7.4)	12 (12.4)	38 (19.7)	25 (17.0)	26 (26.3)	22 (25.6)
사회기관에서 처벌	13 (1.8)	6 (1.3)	7 (2.8)	1 (1.1)	2 (2.1)	6 (3.1)	2 (1.4)	2 (2.0)	0 (0.0)
사법기관에서 처벌	24 (3.3)	16 (3.4)	8 (3.2)	1 (1.1)	2 (2.1)	5 (2.6)	8 (5.4)	5 (5.1)	3 (3.5)
잘 모르겠다	369 (51.5)	237 (50.7)	132 (52.8)	72 (75.8)	41 (42.3)	91 (47.2)	77 (52.4)	49 (49.5)	39 (45.3)
χ^2		13.02*		61.08**					

* $p < .05$, ** $p < .01$

3-1)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처리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통 45.6%(337명), 잘함 22.7%(168명)로 나타난 바, 잘못함, 매우 잘못함 각각 12.7%(94명), 11.1%(82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함도 7.8%(58명)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학교폭력 처리 인식 관련 잘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 < .01$).

표IV-14.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매우 잘못함	82 (11.1)	51 (10.6)	31 (12.1)	4 (3.9)	12 (11.8)	28 (14.1)	13 (8.7)	8 (8.1)	17 (19.5)
잘못함	94 (12.7)	49 (10.2)	45 (17.5)	4 (3.9)	9 (8.8)	36 (18.1)	20 (13.4)	14 (14.1)	11 (12.6)
보통	337 (45.6)	214 (44.4)	123 (47.9)	47 (45.6)	46 (45.1)	88 (44.2)	69 (46.3)	41 (41.4)	46 (52.9)
잘함	168 (22.7)	120 (24.9)	48 (18.7)	38 (36.9)	30 (29.4)	35 (17.6)	35 (23.5)	21 (21.2)	9 (10.3)
매우 잘함	58 (7.8)	48 (10.0)	10 (3.9)	10 (9.7)	5 (4.9)	12 (6.0)	12 (8.1)	15 (15.2)	4 (4.6)
χ^2		18.59**		57.12***					

** $p < .01$, *** $p < .001$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

학생들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내용에 대해 처벌의 강화 및 보안 46.5%(323명), 경찰 순찰활동 강화 15.7%(109명), 가정교육 강화 11.2%(78명), 전인교육·인성교육 강화 9.9%(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IV-1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처벌의 강화 및 보안	323 (46.5)	206 (44.9)	117 (49.8)	34 (35.1)	39 (42.4)	81 (47.1)	75 (51.0)	42 (42.4)	52 (59.8)
경찰 순찰활동 강화	109 (15.7)	72 (15.7)	37 (15.7)	25 (25.8)	17 (18.5)	18 (10.5)	27 (18.4)	14 (14.1)	8 (9.2)
가정교육 강화	78 (11.2)	58 (12.6)	20 (8.5)	9 (9.3)	7 (7.6)	24 (14.0)	15 (10.2)	19 (19.2)	4 (4.6)
폭력서클의 해체 및 순화교육	59 (8.5)	38 (8.3)	21 (8.9)	19 (19.6)	8 (8.7)	11 (6.4)	12 (8.2)	6 (6.1)	3 (3.4)
전인교육·인성교육 강화	69 (9.9)	47 (10.2)	22 (9.4)	5 (5.2)	12 (13.0)	19 (11.0)	11 (7.5)	10 (10.1)	12 (13.8)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강화	38 (5.5)	25 (5.4)	13 (5.5)	3 (3.1)	7 (7.6)	12 (7.0)	5 (3.4)	6 (6.1)	5 (5.7)
기타	18 (2.6)	13 (2.8)	5 (2.1)	2 (2.1)	2 (2.2)	7 (4.1)	2 (1.4)	2 (2.0)	3 (3.4)
χ^2		3.66		62.25***					

*** $p < .001$

4-1)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할 집단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집단을 어디라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교사·학교 41.4%(305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생 자신 28.3%(208명), 부모·가정 17.0%(125명), 청소년 보호단체 9.2%(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서 중학생들은 학생 자신을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 < .01$).

표IV-16.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할 집단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교사/학교	305 (41.4)	200 (41.8)	105 (40.7)	40 (37.7)	40 (40.0)	77 (40.7)	78 (51.7)	28 (27.7)	42 (47.2)
부모/가정	125 (17.0)	75 (15.7)	50 (19.4)	17 (16.0)	22 (22.0)	33 (17.5)	24 (15.9)	19 (18.8)	10 (11.2)
청소년 보호단체	68 (9.2)	50 (10.5)	18 (7.0)	14 (13.2)	8 (8.0)	6 (3.2)	11 (7.3)	20 (19.8)	9 (10.1)
지역사회 단체	16 (2.2)	13 (2.7)	3 (1.2)	2 (1.9)	1 (1.0)	1 (0.5)	7 (4.6)	2 (2.0)	3 (3.4)
학생자신	208 (28.3)	130 (27.2)	78 (30.2)	32 (30.2)	27 (27.0)	67 (35.4)	30 (19.9)	30 (29.7)	22 (24.7)
대중매체	14 (1.9)	10 (2.1)	4 (1.6)	1 (0.9)	2 (2.0)	5 (2.6)	1 (0.7)	2 (2.0)	3 (3.4)
χ^2		6.27		54.54**					

** $p < .01$

4-2)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받은 경험

학생들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 92.1%(692명), 받아본 적이 없다 7.9%(59명)로 나타나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접근이 충분히 시도된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받은 경험을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 < .001$).

표IV-17.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 받은 경험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있다	692 (92.1)	433 (89.1)	259 (97.7)	108 (100.0)	99 (97.1)	192 (96.5)	135 (89.4)	94 (93.1)	64 (71.1)
없다	59 (7.9)	53 (10.9)	6 (2.3)	0 (0.0)	3 (2.9)	7 (3.5)	16 (10.6)	7 (6.9)	26 (28.9)
χ^2		17.69***		74.47***					

*** $p < .001$

4-3)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선호 유형

학생들은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설문
에 대해 폭력예방 비디오 상영 38.2%(276명), 분노조절 프로그램 23.8%(172
명), 학생의 정서순화 교육 15.1%(109명) 멘토링프로그램 11.1%(80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IV-18.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선호 유형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분노조절 프로그램	172 (23.8)	103 (22.1)	69 (27.1)	26 (24.8)	19 (20.0)	52 (28.0)	29 (19.3)	24 (24.2)	22 (25.0)
학생의 정서순화 교육	109 (15.1)	77 (16.5)	32 (12.5)	15 (14.3)	14 (14.9)	23 (12.4)	17 (11.3)	20 (20.2)	20 (22.7)
수호천사 프로그램	58 (8.0)	35 (7.5)	23 (9.0)	7 (6.7)	7 (7.4)	11 (5.9)	13 (8.7)	12 (12.1)	8 (9.1)
폭력예방 비디오 상영	276 (38.2)	174 (37.3)	102 (40.0)	50 (47.6)	43 (45.7)	67 (36.0)	61 (40.7)	30 (30.3)	25 (28.4)
멘토링 프로그램	80 (11.1)	55 (11.8)	25 (9.8)	6 (5.7)	7 (7.4)	24 (2.9)	25 (16.7)	9 (9.1)	9 (10.2)
기타	27 (3.7)	23 (4.9)	4 (1.6)	1 (1.0)	4 (4.3)	9 (4.8)	5 (3.3)	4 (4.0)	4 (4.5)
χ^2		9.78		34.54					

4-4)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정도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시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전교생 한자리 모여 년 1회 26.3%(194명)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급당 주 1회 26.2%(193명), 한 학기 8시간 23.7%(175명)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예방법¹¹⁾에서 제시한 학기별 1회 이상 보다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년에 따라서는 고등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에 시행 정도에 대해 많은 시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05$).

표IV-19.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시행 정도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한 학기 8시간	175 (23.7)	124 (25.7)	51 (19.9)	26 (25.5)	20 (19.4)	41 (21.0)	45 (30.0)	19 (19.2)	24 (27.0)
학급당 주 1회	193 (26.2)	121 (25.1)	72 (28.1)	22 (21.6)	25 (24.3)	44 (22.6)	47 (31.3)	23 (23.2)	32 (36.0)
7~8명 소집단 프로그램 진행	71 (9.6)	36 (7.5)	35 (13.7)	12 (11.8)	8 (7.8)	24 (12.3)	13 (8.7)	12 (12.1)	2 (2.2)
전교생 한자리 모여 년 1회	194 (26.3)	125 (25.9)	69 (27.0)	33 (32.4)	33 (32.0)	52 (26.7)	32 (21.3)	27 (27.3)	17 (19.1)
폭력 발견 시에만 적용	105 (14.2)	76 (15.8)	29 (11.3)	9 (8.8)	17 (16.5)	34 (17.4)	13 (8.7)	18 (18.2)	14 (15.7)
χ^2		12.03*		34.76*					

* $p<.05$

11)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5) 학교폭력 피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제시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심리상담, 조언이 37.0%(267명)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시 보호 24.0%(173명), 전학 권고 15.5%(112명), 치료를 위한 요양 11.9%(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으로서 심리상담·조언을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 < .001$).

표IV-20. 학교폭력 피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심리상담, 조언	267 (37.0)	157 (32.9)	110 (44.9)	43 (41.3)	37 (38.1)	61 (33.7)	59 (39.1)	34 (34.3)	33 (36.7)
일시 보호	173 (24.0)	135 (28.3)	38 (15.5)	26 (25.0)	23 (23.7)	41 (22.7)	40 (26.5)	24 (24.2)	19 (21.1)
치료를 위한 요양	86 (11.9)	52 (10.9)	34 (13.9)	12 (11.5)	11 (11.3)	16 (8.8)	17 (11.3)	15 (15.2)	15 (16.7)
학급 교체	71 (9.8)	46 (9.6)	25 (10.2)	8 (7.7)	12 (12.4)	24 (13.3)	10 (6.6)	12 (12.1)	5 (5.6)
전학 권고	112 (15.5)	75 (15.7)	37 (15.1)	13 (12.5)	13 (13.4)	36 (19.9)	21 (13.9)	12 (12.1)	17 (18.9)
기타	13 (1.8)	12 (2.5)	1 (0.4)	2 (1.9)	1 (1.0)	3 (1.7)	4 (2.6)	2 (2.0)	1 (1.1)
χ^2		22.63***		19.51					

*** $p < .001$

4-6) 학교폭력 가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제시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보호방안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 퇴학 처분이 27.7%(19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27.4%(194명), 전학 15.1%(107명), 피해학생 접촉 및 협박 금지 등의 명령 처분 10.5%(74명), 봉사활동 7.2%(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방안과 같이 학생들이 즉각적인 대처방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p<.05$),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p<.01$) 학교폭력 가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으로서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

표IV-21. 학교폭력 가해학생 긍정적인 보호방안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전문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194 (27.4)	115 (24.9)	79 (32.1)	21 (20.8)	21 (21.9)	57 (32.4)	43 (28.7)	26 (26.3)	26 (30.6)
퇴학 처분	196 (27.7)	145 (31.5)	51 (20.7)	18 (17.8)	28 (29.2)	37 (21.0)	59 (39.3)	29 (29.3)	25 (29.4)
전학	107 (15.1)	62 (13.4)	45 (18.3)	13 (12.9)	25 (26.0)	28 (15.9)	15 (10.0)	16 (16.2)	10 (11.8)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문 작성	24 (3.4)	20 (4.3)	4 (1.6)	6 (5.9)	2 (2.1)	3 (1.7)	5 (3.3)	5 (5.1)	3 (3.5)
피해학생 접촉, 협박 금지 등 명령 처분	74 (10.5)	48 (10.4)	26 (10.6)	23 (22.8)	8 (8.3)	18 (10.2)	10 (6.7)	8 (8.1)	7 (8.2)
봉사활동	51 (7.2)	33 (7.2)	18 (7.3)	11 (10.9)	4 (4.2)	11 (6.2)	12 (8.0)	7 (7.1)	6 (7.1)
출석정지	32 (4.5)	18 (3.9)	14 (5.7)	7 (6.9)	4 (4.2)	10 (5.7)	4 (2.7)	3 (3.0)	4 (4.7)
학급교체	22 (3.1)	14 (3.0)	8 (3.3)	2 (2.0)	4 (4.2)	9 (5.1)	1 (0.7)	3 (3.0)	3 (3.5)
기타	7 (1.0)	6 (1.3)	1 (0.4)	0 (0.0)	0 (0.0)	3 (1.7)	1 (0.7)	2 (2.0)	1 (1.2)
χ^2		18.08*		69.75**					

* $p<.05$, ** $p<.01$

4-7) 학교폭력 문제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 정신·심리치료사가 43.8%(31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담임교사 25.4%(183명), 외부의 상담 전문가 12.6%(91명), 교내 전문상담교사 11.2%(8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정신·심리치료사 등 학교폭력 전문 인력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폭력 문제의 전문 인력으로서 정신·심리치료사를 높게 언급하였고($p < .001$),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IV-22. 학교폭력 문제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정신·심리치료사	315 (43.8)	147 (31.5)	168 (66.9)	42 (40.4)	52 (54.2)	90 (50.0)	62 (41.3)	35 (35.4)	34 (38.2)
사회복지사	29 (4.0)	24 (5.1)	5 (2.0)	5 (4.8)	3 (3.1)	7 (3.9)	9 (6.0)	5 (5.1)	0 (0.0)
교내 상담교사	81 (11.2)	59 (12.6)	22 (8.8)	14 (13.5)	13 (13.5)	13 (7.2)	18 (12.0)	12 (12.1)	11 (12.4)
담임교사	183 (25.4)	153 (32.8)	30 (12.0)	26 (25.0)	12 (12.5)	42 (23.3)	39 (26.0)	33 (33.3)	31 (34.8)
외부 상담 전문가	91 (12.6)	70 (15.0)	21 (8.4)	14 (13.5)	16 (16.7)	20 (11.1)	18 (12.0)	12 (12.1)	11 (12.4)
기타	19 (2.6)	14 (3.0)	5 (2.0)	3 (2.9)	0 (0.0)	8 (4.4)	4 (2.7)	2 (2.0)	2 (2.2)
χ^2		86.96***		34.82					

*** $p < .001$

4-8)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 제시된 피해학생 보호 외에 피해학생을 위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30.2%(219명)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28.2%(204명), 피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20.2%(146명), 피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 10.1%(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 제시한 것 외에 학생들이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IV-23.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지속적인 사후관리	204 (28.2)	126 (26.6)	78 (31.2)	26 (25.7)	27 (27.8)	50 (26.6)	42 (28.2)	28 (28.0)	31 (34.8)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219 (30.2)	136 (28.7)	83 (33.2)	26 (25.7)	28 (28.9)	56 (29.8)	47 (31.5)	35 (35.0)	27 (30.3)
부모에 대한 개입	64 (8.8)	50 (10.5)	14 (5.6)	9 (8.9)	9 (9.3)	20 (10.6)	8 (5.4)	12 (12.0)	6 (6.7)
피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146 (20.2)	97 (20.5)	49 (19.6)	21 (20.8)	25 (25.8)	35 (18.6)	37 (24.8)	16 (16.0)	12 (13.5)
피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	73 (10.1)	51 (10.8)	22 (8.8)	17 (16.8)	8 (8.2)	21 (11.2)	13 (8.7)	5 (5.0)	9 (10.1)
기타	18 (2.5)	14 (3.0)	4 (1.6)	2 (2.0)	0 (0.0)	6 (3.2)	2 (1.3)	4 (4.0)	4 (4.5)
χ^2		8.76		27.86					

4-9)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학생들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시된 가해학생 보호 외에 가해학생을 위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 피해학생 보호 내용과 같이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이 31.9%(232명)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26.5%(193명), 부모에 대한 개입 15.5%(113명), 가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13.9%(10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을 다소 높게 언급하였고($p<.05$), 학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IV-24.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보강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지속적인 사후관리	193 (26.5)	114 (24.1)	79 (31.0)	25 (24.0)	21 (21.6)	45 (23.8)	39 (26.2)	32 (32.0)	31 (34.8)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	232 (31.9)	152 (32.1)	80 (31.4)	30 (28.8)	34 (35.1)	60 (31.7)	50 (33.6)	27 (27.0)	31 (34.8)
부모에 대한 개입	113 (15.5)	73 (15.4)	40 (15.7)	21 (20.2)	16 (16.5)	31 (16.4)	21 (14.1)	15 (15.0)	9 (10.1)
가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101 (13.9)	63 (13.3)	38 (14.9)	16 (15.4)	14 (14.4)	31 (16.4)	20 (13.4)	15 (15.0)	5 (5.6)
가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	62 (8.5)	50 (10.6)	12 (4.7)	8 (7.7)	11 (11.3)	16 (8.5)	13 (8.7)	6 (6.0)	8 (9.0)
기타	27 (3.7)	21 (4.4)	6 (2.4)	4 (3.8)	1 (1.0)	6 (3.2)	6 (4.0)	5 (5.0)	5 (5.6)
χ^2		11.93*		21.03					

* $p<.05$

4-10)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

향후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학교폭력 대책이 무엇인지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가 27.3%(19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가 16.4%(118명), 학교폭력 예방 특별 프로그램 실시 13.0%(93명), 학교 담당 사복 경찰 확대 실시 12.8%(92명),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선도 9.5%(6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 학년별로 재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로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남학생은 학교 담당 사복 경찰을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01$).

표IV-25.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

(단위 : 명, %)

	전체	성별		학년					
		남	여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선도	68 (9.5)	50 (10.5)	18 (7.4)	5 (5.0)	10 (10.3)	16 (8.6)	20 (13.3)	10 (10.2)	7 (8.0)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	118 (16.4)	77 (16.2)	41 (16.8)	20 (20.0)	15 (15.5)	28 (15.1)	24 (16.0)	17 (17.3)	14 (15.9)
학교폭력예방 특별 프로그램 실시	93 (13.0)	60 (12.7)	33 (13.5)	7 (7.0)	14 (14.4)	26 (14.1)	17 (11.3)	13 (13.3)	16 (18.2)
학교 담당 사복 경찰 확대 실시	92 (12.8)	68 (14.3)	24 (9.8)	9 (9.0)	13 (13.4)	19 (10.3)	27 (18.0)	11 (11.2)	13 (14.8)
전인교육·인성교육 실시	44 (6.1)	32 (6.8)	12 (4.9)	6 (6.0)	4 (4.1)	10 (5.4)	6 (4.0)	9 (9.2)	9 (10.2)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보	30 (4.2)	10 (2.1)	20 (8.2)	3 (3.0)	8 (8.2)	10 (5.4)	3 (2.0)	2 (2.0)	4 (4.5)
학교 내 CCTV 설치	196 (27.3)	131 (27.6)	65 (26.6)	37 (37.0)	26 (26.8)	46 (24.9)	41 (27.3)	26 (26.5)	20 (22.7)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63 (8.8)	34 (7.2)	29 (11.9)	12 (12.0)	7 (7.2)	25 (13.5)	10 (6.7)	7 (7.1)	2 (2.3)
기타	14 (1.9)	12 (2.5)	2 (0.8)	1 (1.0)	0 (0.0)	5 (2.7)	2 (1.3)	3 (3.1)	3 (3.4)
χ^2		26.12**		51.25					

** $p<.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을 토대로 제주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원인과 실태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학교폭력에 대한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제주지역에서 무선표집한 중·고등학교 총 6개 학교 21개 학급 중·고등학생 총 8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의 유형별 실태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설문 대상 757명 중 8.5%(64명)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3.9%(28명)로 중·고등학생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대응 방법 분석 결과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44.2%로 나타나 학교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생들이 많은 반면, 학교에 가해 학생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가해학생의 형사처분 요구 등 적극적인 방법을 이용한 학생들은 각각 6.5%, 1.3%로 낮게 나타나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안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설문 대상 757명 중 6.3%(48명)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중3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10.9%(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한 분석 결과, 본인의 성격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4.2%로 나타나 불량서클이나 폭력문화 및 과열경쟁과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폭력을 가한 후 심정 및 행동 변화에 대해서 후회한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은 학생이 62.5%(30명)로 높게 나타났으나, 후회는 되었지만 폭력에 계속 가담하거나, 별 생각이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학생 등 학교폭력을 계속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응답이 37.8%(18명)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후회한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음이 90.9%(10명)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은 주로 같은 학교 학생들을 통해 쉬는 시간에 교실(복도) 및 교내 으스스한 후미진 곳에서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장소 관련, 남학생의 경우 교실(복도)을 다소 많이 언급하였고($p<.001$), 학교폭력 발생 시간 관련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 49.4%(209명), 여학생들은 하교 이후 시간 42.8%(9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1$).

여섯째,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한 조치로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가 51.5%(36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1·고1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p<.01$). 이는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폭력 대처방안이나 처벌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학교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의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장 우선적 조치로서 학생들은 처벌의 강화 및 보안 46.5%(323명), 경찰 순찰활동 강화 15.7%(109명) 순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사 위주의 형식적인 학교폭력 대책보다는 외부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을 교사·학교 41.4%(305명)라고 가장 강조하여, 부모·가정이나 청소년 보호단체 보다는 학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설문 학생 751명 중 92.1%(692명)가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다소 높게 언급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넷째,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 방안 관련, 여학생이 심리상담·조언을 44.9%(110명)로 강조하였고($p < .001$),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전문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다소 높게 언급하였다($p < .01$).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멀리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복의 두려움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상담 분야 관련 더욱 충분한 도움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해 학교 내 CCTV 설치가 27.3%(19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로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를, 남학생은 학교 담당 사복 경찰을 다소 높게 언급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학생들의 성별·학년별 특성 파악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및 피해 징후를 감지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노력, 또한 성별·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운영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프로그램) 실시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

가 부적절한 대처나 무관심, 방조 등의 대응방식으로 대처하였을 때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에 대해 정신·심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중점 추진 분야로서 학교 내 CCTV 설치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용길(2012).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2호. pp.3-34.
- 강유미(2011).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2012).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난주(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범수(2009). 학교폭력의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왕열(200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 경찰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이진석·이선우(2010).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호.
- 김재철·최지영(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제20권 제1호.
- 김형우(2009).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등 돌린 학교...아이는 목숨을 등졌다". (2011. 12. 27). 헤럴드경제, p.12.
- 류영숙(2012).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9권 제4호. pp.615-636.
- "멈춰! 학교폭력". (2012. 1. 5). 중앙일보, p.4.
- 민경목(2008). 학교 폭력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손희권·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윤기(2012).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책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

- 집 제5권. pp.256-280.
- "손 못 쓰는 학교 성폭력". (2012. 1. 9). 서울신문, p.1.
- 윤석진(2007).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교사의 역할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2년간 3천만 원, 중학교 조직 상납, 19명 입건". (2012. 1. 20). 제민일보, p.4.
- 이상현(2000).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이성식(2011).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서울 : 청목출판사
- 이승권(2008). 청소년의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현(20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 이영돈(201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법·제도적 대응방안 고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36집 제1호. pp.165-197.
- 이창균(2005).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희(2008).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양식(2009). 학교폭력과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권배(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병일(2009). 학교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우일(2012).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pp.177-195.
- 정종진(2012).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초등상담연구 제11권 제3호. pp.331-3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2), 제주교육통계연보.

조영애(2007).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태도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

한진태(2012).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년정
책학회 제18호. pp.195-226.

한상철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 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허중렬(2013).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pp.118-140.

홍중관(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상담교
육학회 초등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pp.237-259.

<Abstract>

**Study on Reality of School Violence Which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of Jeju Area Perceive
and Its Management Plan**

Kim, eun-a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¹²⁾

Academic Adviser Kim, sung-bong

This study intended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n the cause and the reality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school violence located in Jeju area, based on School Violence Precautionary Measure and seek management plan for school violence. To perform the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otal 810 middle-high school students of 3 middle schools and 3 high schools in Jeju area through random sampling along with school violence repetition rate.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be referred to prepare school violence management plan which is substantially preferred by students and institutionally necessary. To do so,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as follows.

*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of education which was presented to graduate school committee of education at Jeju University in August, 2013.

Subject 1: What is the reality along with the type of school violence?

Subject 2: What is the degree of school violence along with gender and grade?

Subject 3: What is the school violence management plan that students perceive?

The research tools of this study were 30 items of questionnaire as analysis data, which we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e researches of Jeon, byung-il (2009), Lee, seung-gwon (2007), Jo, young-ae (2007), along with the study purpose, data analysis was analyzed through percentage, frequency, intersect, χ^2 , by using SPSS for Windows 20.0.

The results from this research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advance, the results of survey analysis on the reality along with the type of school violence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along with the gender of students who had damage from school violence, however according to the grade, 3rd graders of middle school appeare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total grades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who had damage from school violence.

Seco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 along with the gender in the students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like the students who had damage from school violence, however according to the grade, 3rd graders of middle school appeare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total grades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Third, school violence appeared to occur in the classrooms (passages), dark and remote places in the school during the recess mainly by the students in the same school, meaningful difference appeared along with the occurrence place, time, and gender of school violence.

Fourth, the response indicating the possibility to repeat school violence continuously along with the feelings and behavior change after commitment of school violence, male students showed higher rate therein, however female

students showed somewhat higher rate in regret and not committing violence again.

Fifth, the average students showed the highest rate in responding that they do not know well about the management plan on the students who committed school violence. Particularly, 1st graders of middle-high school students showed somewhat higher response that they do not know well about the management plan on the assailant of school violence.

Next,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on the school violence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priority 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at students emphasized appeared along with the order of reinforcement of punishment and security 46.5%(323), reinforcement of police patrol 15.7%(109), that they want external agency's active intervention rather than formal school violence management plan mainly with events.

Second, students most emphasized that the group which should play the leading role i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s teacher-school 41.4%(305), that the role of school appeared more important than parents-family or youth organization.

Third, 92.1%(692) of the 751 students who attended the survey responded that they receiv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gender that female students, and in grade that middle school students mentioned somewhat higher.

Fourth,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measure for the offender students and injured students of school violence, along with gender,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that female students mentioned psychology consultation·advice, and along with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mentioned experts' special education·psychotherapy.

Fifth, with regard to the priority area for propell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 students most emphasized on the installation of CCTV in the school. Particularly,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regarding that female students

mentioned the procurement of cultural space, and male students mentioned plain clothes policemen in school a bit higher.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researcher suggests as follows to prepare necessary measure to prevent school violence.

First, the sign of school violence occurrence and damage must be perceived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along with gender-grade of students and on the basis of this, institutional strategy to prepare school violence measure must be imposed.

Second, it is acknowledged that many students received school violence education by the implementation of continuou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bout school violence, however the effectiveness thereof is not sure, so that the program development for this is required.

Third, to grasp the exact reality and the cause of school violence, regular and consistent school violence reality survey should be implemented.

Fourth, teachers who have the key role in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have constant attention to students, and the circumstance should be created that they intervene to solve the cases when problems happen between students.

Lastly, students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 manpower e.g. mental-psychotherapy, etc. for school violence offender students and injured students, and emphasized most on the installation of CCTV in the school as the priority area of propell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 so that administrative-financial support for this must be backed.

11. 학생은 어떤 원인 때문에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생각하는가요?

- __① 본인의 성격문제
 __② 본인의 가정문제
 __③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의 문제
 __④ 과열경쟁과 입시위주의 학교교육문제
 __⑤ 불량서클이나 폭력조직 등 폭력문화
 __⑥ 학교 구성원 등 어른들의 무관심
 __⑦ 기타()

12. 학생은 학교폭력을 가한 후 어떤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하였는가요?

- __① 후회한 후 다시는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__② 후회는 되었지만 폭력에 계속 가담했다.
 __③ 별 생각이 없다.
 __④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__⑤ 나의 폭력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13. 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무슨 이유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가요?(중복 체크 가능)

- | | |
|----------------|---|
| __① 이유 없이 | __② 약하게 보여서 |
| __③ 금품 때문에 | __④ 친구가 적거나 없어서 |
| __⑤ 순종하지 않아서 | __⑥ 잘난 척 해서 |
| __⑦ 사소한 감정 때문에 | __⑧ 기타() |

14. 학교폭력을 경험 또는 목격했거나 전해들은 것에 의하면, 가장 심하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 | |
|------------------------|---------------|
| __① 같은 학교 친구, 동급생 | __② 같은 학교 선배 |
| __③ 다른 학교 친구·아는 사람 | __④ 전혀 모르는 사람 |
| __⑤ 재수생, 복학생, 퇴학생, 정학생 | |

15. 학교폭력은 주로 언제 발생하는가요?

- | | |
|-----------|--------------|
| __① 등교 시간 | __② 수업 시간 |
| __③ 쉬는 시간 | __④ 점심 시간 |
| __⑤ 하교 시간 | __⑥ 하교 이후 시간 |

16. 학교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① 교실(복도)
- ② 화장실
- ③ 교내 으스스하고 후미진 곳
- ④ 오락실 · PC방 · 노래방
- ⑤ 학교주변 골목길
- ⑥ 친구의 집 · 자취방

17. 학생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요?

- ①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② 담임선생님이 알아서 처리했다.
- ③ 학부모가 서로 합의 처리했다.
- ④ 교칙에 따라 처벌되었다.
- ⑤ 사회기간(청소년 단체 등)에서 처벌되었다.
- ⑥ 사법기관(경찰 등)에서 처벌되었다.
- ⑦ 잘 모르겠다.

18.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는가요?

- ① 매우 잘못하고 있다
- ② 잘못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하고 있다.
- ⑤ 매우 잘하고 있다.

다음은 학교폭력 대처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19.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처벌의 강화(법적 · 제도적 장치) 보완
- ② 경찰 순찰활동의 강화
- ③ 가정교육의 강화
- ④ 폭력서클(폭력조직)의 해체 및 순화교육
- ⑤ 전인교육 · 인성교육 강화
- ⑥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정화
- ⑦ 기타()

20. 학교폭력 예방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요?

- ① 교사/학교
- ② 부모/가정
- ③ 청소년 보호단체
- ④ 지역사회단체
- ⑤ 학생자신
- ⑥ 대중매체

21.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요?

- ① 있다
- ② 없다

22.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을 받는다면 어떠한 것을 실시하면 좋겠는가요?

- ① 분노조절 프로그램
- ② 학생의 정서순화 교육
- ③ 수호천사 프로그램
- ④ 폭력예방 비디오 상영
- ⑤ 멘토링 프로그램
- ⑥ 기타()

23. “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 ① 한 학기 8시간
- ② 학급당 주 1회
- ③ 구성원 7~8명 소집단 구성하여 프로그램 진행
- ④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년 1회
- ⑤ 폭력 발견시에만 적용

24.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내용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심리상담, 조언
- ② 일시 보호
- ③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학급 교체
- ⑤ 전학 권고
- ⑥ 기타()

25. “가해학생” 보호를 위한 내용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② 퇴학 처분
- ③ 전학
- ④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문 작성

- ⑤ 피해학생 접촉 및 협박 금지 등의 명령 처분
- ⑥ 봉사활동 ⑦ 출석정지
- ⑧ 학급교체 ⑨ 기타()

26. 학교폭력 문제를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요?

- ① 정신·심리치료사 ② 사회복지사
- ③ 교내 전문상담교사 ④ 담임선생님
- ⑤ 외부의 상담 전문가 ⑥ 기타()

27. “피해학생” 보호에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속적인 사후관리 ②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 ③ 부모에 대한 개입 ④ 피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 ⑤ 피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 ⑥ 기타()

28. “가해학생” 보호에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지속적인 사후관리 ②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
- ③ 부모에 대한 개입 ④ 가해학생이 속한 학급에 대한 개입
- ⑤ 가해학생이 속한 담임교사에 대한 개입 ⑥ 기타()

29.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 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학생선도
- ② 교사의 지도, 순찰 강화
- ③ 학교폭력 예방 특별프로그램 실시
- ④ 학교담당 사복경찰 확대 실시
- ⑤ 전인교육, 인성교육 실시
- ⑥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확보
- ⑦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 ⑧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 ⑨ 기타()

